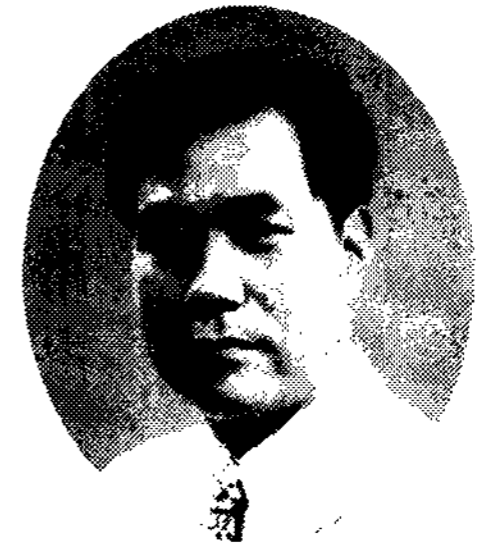


## Periodontal Surgery prior to Prosthodontics

### 보철전 치주 수술

서영수 박사

서영수 치과의원



보철전 치주수술은 일반적인 치주수술과 다를바는 없으며, 여기서 보철전 치주수술이라 함은 이상적인 보철수복을 위한 치주수술과, 치주질환을 치료하기위한 치주수술과 더불어 보철적 수복을 하는경우로 구분해서 생각해볼 수 있겠다. 어느 경우이거나 보철과 관련된 치주수술일 경우에는 심미성과 효율적 치태관리가 만족되어야한다. 두 요소가 동시에 만족될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환자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술식이 응용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또 부위에 따라 심미성이 강조되는 전치부와 기능 및 효율적인 치태관리가 강조되는 구치부로 구분해 볼 때 그 목적에 부합하는 술식을 술자는 선택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본 강의에 있어서는 심미성을 높이기위한 보철전 치주수술과 효과적 치주유지 기능을 높이기 위한 치주수술로 나누어 논함이 좋을 것 같다.

#### 1. 전치부의 보철전 치주수술

기존의 일반적인 치주수술법들은 심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수 있다. 치은퇴축, 치간유두의 소실등은 심미적으로 만족할만한 보철적 수복을 어렵게한다. 이런 문제점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질환 자체를 근치할수 있는 여러 가지 수술법들을 응용해야한다. 특히 치간유두의 보존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으면 심미적 보철수복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치은의 퇴축도 심미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치은연의 비대칭성 뿐만아니라 얇은 치은의 경우 보철후의 잠재적 퇴축을 막기위한 결합 조직이식술 등을 병행함도 좋겠다. 치관길이가 짧아 보철물의 유지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대칭성을 고려한 치관길이확장술을 시행한다. 치간유두의 보존을 위해서는 Papilla preservation flap, papilla retained flap procedure, Modified internal bevel gingivectomy, proximal overlapped flap Modified papilla preservation technique 등 여러술식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술자는 적절한 선택을 해야한다. 소실된 치간유두의 증강을 위해서는 Fenestration-CPF-CTG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예후가 일관되지 않아 향후 해결해야될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Ridge collapse 의 경우에도 골이식 onlay graft, interpositional graft 등을 적용해 볼 수 있고, Ridge preservation을 위해서 socket augmentation, root submergence 등을 행할 수도 있겠다.

#### 2. 구치부 보철전 치주수술

중등도 이상의 치주염이 있는 경우 구치부에서 문제가 되는점은 치주수술후 보철적 수복을 했을 때 치주유지 관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냐의 문제이다. 특히 구치부에서는 분지부 병소

를 흔히 동반하는데 이 경우에 여러 수술법이 시도 되지만 특히 보철수복을 요할 경우에는 환자스스로 치태관리를 용이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술해주지 않으면 그 결과는 불량할 수밖에 없다. 2급 근분지부 병소의 경우 수술후 분지부가 노출되면 치태조절이 불가능해져서 예후가 좋을 수 없으며, 3급의 경우에도 환자 스스로 치간치솔로 치태제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술은 잘되었다해도 예후는 나쁠수 밖에없다. 따라서 분지부 병소에서는 분지부를 노출시킬 경우에는 환자가 쉽게 분지부 치태조절을 할수 있는지 고려하여야 하며 불가능할 시에는 분지부 노출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수술법을 고려해야 한다. 치근절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경우 분지부 노출을 최대한 막기위한 술식으로 결합조직이식술, 골이식술 또는 골이식결합조직이식 병행 Inlay graft, 또는 Z plasty를 응용한 수술법등 그 조건에 맞는 술식을 선택해야한다.

## 약력

### 서영수

- 서울 치대 졸업 (1973)
- 치의학박사 (서울대 , 1981)
- 서울치대(전), 연세치대(현), 고려대(현), 이화여대의대(현) 외래교수
-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이사(전)
- 대한치주과학회 부회장(현)
- 서 영 수 치과의원(현)